

## 번스타인의 「새들 1권」에 나타난 움직임과 음악의 상관관계 분석 및 교수방안

\* 김 하 림, 유 승 지 \*\*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새들 1권」작품 구성 개요
	III. 「새들 1권」의 작품 분석에서 나타난 움직임과 음악의 상관관계
	IV. 움직임을 활용한 「새들 1권」의 교수방안 모색
	V. 결론
	참고문헌

---

\* 한세대학교 피아노교수학 박사과정

\*\* 교신저자 : 한세대학교 피아노페даго지대학원 교수

논문투고일 : 2018.10.27.

논문심사일 : 2018.11.17.

게재확정일 : 2018.12.01.

## Analysis and teaching method of the correlation between movement and music appeared in Birds 1 by Bernstein, S.

Kim, Ha-rim · Hansei University

Ryu, Seung-ji · Hansei University

---

Known as a pianist as well as a piano pedagogue and a composer, Bernstein, S. (1927~) composed various works for piano learners. Emphasizing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movements when it comes to musical expressions, he has created musical pieces based on live animals or insects. Most notable of all is Birds 1, which is his first suite for piano education that consists between 8 pieces of 1-2 pages. This particular piece was all composed based on impressions of birds' movements and sounds using the modern composition techniqu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movements and music, and explore teaching methods which would be helpful for the effective learning of Bir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Birds 1, Bernstein, S. suggested 2-3 motives to express the characteristic movements and sounds of each bird, and employed techniques to develop and transform these motives. With the repeated or changed patterns of rhythm according to the unit and conversion of beats, the changes in the movements are naturally described. The phrase and form are separated depending on the developing patterns of the motives, resulting in changes in the atmosphere. With the registers, intervals, and harmony reflecting birds' sounds or movements, the audience can imagine the kinds and sounds of different birds effectively. Furthermore, the continuous dissonance created from distinct use of atonality and bitonality. Birds 1 also implies the musical atmosphere effectively by employing descriptive directives that properly present the features of birds. Additionally, the piece delivers changes in musical nuance by the delicate use of dynamics and articulation.

For the effective learning of this piece which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birds by combining various musical elements, the researcher suggests three teaching methods: 1) learning by using images; 2) learning by using plastic animée; and 3) learning by creative activities in which movements and performance are combined.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piano teaching method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movement becomes more active, and the piano work composed for education will be more actively used in the dance education field.

〈key words〉 Bernstein, S., birds, movement, piano pedagogy, dance education

〈주요어〉 번스타인, 새들, 움직임, 피아노교수법, 무용교육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로 국내에 알려진 Bernstein, S.(1927~1990)은 피아니스트뿐 아니라 피아노 교수학자, 작곡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교육자로서의 활동은 15세에 Leschetizky, T. (1830-1915)와 Schnabel, A.(1882~1951)의 제자였던 Husserl, C.의 보조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시작되었고, 50세가 되던 1977년에 고별 독주회를 한 후 피아니스트로서의 연주 활동보다는 개인 교습, 강의 및 저술 활동에 주력하였다(Bernstein, S., 2016).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동물들은 내 삶의 일부였다”(Bernstein, S., 2016:166)라고 말할 정도로 동물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는데, 그는 가르치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이나 곤충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살려 음악으로 창조해내는 작업을 즐겨 하였다. 「Birds(새들) 1-2」(1971, 1973), 「Insects(곤충들) 1-2」(1973), 「Raccoons(너구리) 1-2」(1974), 「Belinda the Chipmunk(다람쥐 벨린다)」(1986), 「Köchel and Sheila(콤포와 실라)」(1988)는 동물과 관련된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 중에서 「새들 1권」은 Bernstein, S.의 동물을 소재로 한 작곡의 물꼬를 튼 작품이자 최초의 교육용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의 작곡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Christopher는 1971년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해 여름 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엄청나게 발전한 그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나는 그를 위해 ‘새에 관련된 음악’을 작곡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렇게 탄생된 것이 《보라색 참새》, 《벌새》, 《갈매기》입니다. [...] 이 후 5곡을 더 작곡하여 마침내 「새들 1권」이 완성되었습니다(Bernstein, 2007:2).

교수용으로 작곡된 「새들 1권」은 표제로 제시된 새의 특징적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2-3개의 동기로 표현한 후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조합해 동기를 반복하거나 변형시키는 형태로 작곡되어 움직임과 음악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데 매우 유용한 작품이다. Abramson, R.은 “모든 움직임은 소리로 표현될 수 있다. [...] 음악교육을 통해 소리와 움직임의 관계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연주 역량을 키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유송지, 2014:36 재인용)고 말하였다. Bernstein, S. 역시 “피아니스트들이 음악적인 느낌과 몸을 잘 연결시키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안무와 같은 율동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Bernstein, S. 1991:xiii)고 말할 정도로 음악의 표현에 있어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피아노 연주 시 움직임의 효과적인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했던 Bernstein, S.는 「새들 1권」의 작곡 과정에서 움직임과 음악의 상관관계를 고민하면서 새들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들의 움직임을 이해하면 악보에서 어렵게 보이는 패시지들도 훨씬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새들 1권」의 성공적인 연주를 위해서는 악보에서 제시된 음들이 새들의 움직임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로 주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Bernstein, S.이 작곡한 「새들 1권」의 악곡 분석을 통해 움직임과 음악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둘째, Bernstein, S.이 작곡한 「새들 1권」의 학습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움직임을 활용한 교수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피아노 교육용 레퍼토리를 소개하여 피아노 교육뿐 아니라 무용 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II 「새들 1권」 작품 구성 개요

Magrath, J.가 “「새들」은 Bernstein, S.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1995:299)라고 말하였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새들」은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972년에 출판된 1권만을 다룬다. 「새들 1권」은 Clementi, M.(1752~1832)의 소나티네나 Burgmüller, F.(1806~1874)의 연습곡 정도를 배우는 중급 수준의 학생들이 칠 수 있는 8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1-2쪽 내외로 작곡된 짧은 소품들로 이루어진 각 곡의 주요 특징은 <표 1>과 같이 요약된다.

표 1. 「새들」의 구성

제목	조성	박자	형식	템포	음역 <sup>1)</sup>
《보라색 참새》 (The Purple finch)	중심 음 (F#, E)	홀박자 2/2	AB코다 A (m.1-m.7) B (m.8-m.13) 코다(m.14-m.18)	상냥하게 (Tenderly) J = 54	E3 - G6
《벌새》 (The Humming bird)	중심 음 (F#, C, G)	홀박자 2/2	AA' 코다 A (m.1-m.8) A'(m.9-m.16) 코다(m.17-m.20)	빠르고 희미하게 빛나듯이 (Fast and Shimmering) J = 100	C4 - A#7
《딱따구리》 (The Woodpecker)	복조, 무조	겹박자, 불규칙 박을 포함한 변박자 (6/4, 3/4, 6/4, 2/4, 7/4, 3/4, 6/4, 5/4)	통작 형식	고집스레 (Persistently) J = 126	G3 - A#6
《갈매기》 (The Sea gull)	복조	홀박자 3/4	통작 형식	격렬하게 (Violently) J = 92	F#2 - D#7
《박새》 (The Chickadee)	무조	홀박자 2/4	AA' A(m.1-8) A'(m.9-17)	기쁨에 차서 (Joyously) J = 112	F#3 - G7
《대머리수리》 (The Vulture)	복조	불규칙 박을 포함한 변박자 (7/8, 4/4, 7/8, 3/8)	A경과구A' 코다 A(m.1-m.18) 경과구(m.20-m.23) A'(m.24-m.43) 코다(m.44-m.55)	빈사상태의 (Moribund) J = 40, 느리게	A0 - A5
《펭귄》 (The Penguin)	복조	3/4	AA' A(m.1-m.10) A'(m.11-m.16) 코다(m.17-22)	뒤뚱뒤뚱 걷듯 (Waddling) J = 108	B2 - F6
《독수리》 (The Eagle)	중심 음 (A#)	홀박자와 겹박자를 포함한 변박자 (4/4, 6/4, 3/4, 4/4)	통작 형식	장엄한 (Majestically) J = 84	E2 - A#7

「새들 1권」은 20세기 현대적 작곡기법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작곡되었다. 조성에 있어서 전통적 온음계(diatonic scale)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중심 음(tonal center), 혹은 두 개의 조를 합친 복조(bitonality), 조성이 완전히 해체된 무조(atonality) 등이 사용되어 현대적 음향을 자아낸다. 박자의 경우에도 전통적 박자 체계에 기초한 작품도 있지만 20세기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한 불규칙 박(unequal beat), 변박자

1)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음높이 표기법(scientific pitch notation)에 근거해서 음역을 제시하였다.  
[https://en.wikipedia.org/wiki/Scientific\\_pitch\\_notation](https://en.wikipedia.org/wiki/Scientific_pitch_notation)



(changing meter) 등이 사용되었다. 55마디로 구성된 《대머리수리》가 가장 긴 곡이고 보통 20마디 내외의 분량으로 작곡되었는데, 2~3개의 특징적인 동기를 기초로 2부분 형식, 3부분 형식, 혹은 통작 형식(through-composed form)으로 구성되어 있다. Bernstein, S.는 “연습하는 때 순간 자신의 감정을 실어 연주해야 하고, 템포 표기, 썸머림, 그 외 악보에 표기된 모든 것에는 정서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http://pianoeducation.org/pnosbern.html)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그의 철학이 반영된 듯 「새들 1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템포 관련 지시어 대신 표제에서 제시된 새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묘사적 지시어와 메트로놈 표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연주자들에게 각각의 새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연주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음역의 사용도 매우 특별한데 3옥타브에서 5옥타브 사이에서 작곡이 되었고 높은음자리표가 중점적으로 사용되거나 피아노의 가장 저음이 사용되는 등 왼손은 낮은음자리표, 오른손은 높은음자리표에서 제시되는 일반적인 관행을 깨고 작곡되었다.

### Ⅲ 「새들 1권」의 작품 분석에서 나타난 움직임과 음악의 상관관계

#### 1. 자주색 참새

《자주색 참새》는 새소리가 특별한 작은 새이다. 마디 1의 동기 a에서 사용된 ‘시-솔-파#’ 음정은 32분음표의 장식음을 가진 리듬패턴과 조합되어 지저귀며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는 자주색 참새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동기 a는 작품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선율과 리듬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마디 8과 마디 18-19의 왼손에 등장하는 는 동기 a가 확대되어 만들어진 리듬패턴이며, 마디 16의  16분음표 교차 리듬에서 사용된 선율은 동기 a의 ‘솔, 파#’ 음정만을 따와 변형된 것이다(악보 1).



악보 1-1, 마디 1-2



악보 1-2, 마디 8-9



악보 1-3. 마디 15-18

악보<sup>2)</sup> 1. 《자주색 참새》에서 나타난 3가지 특징적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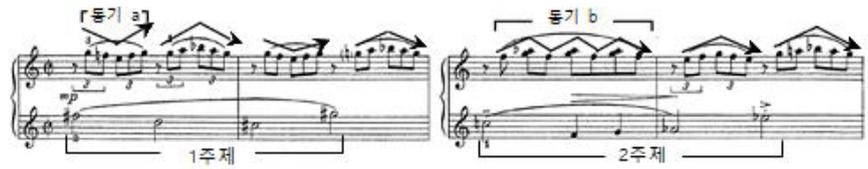
이렇게 동기 a가 작품의 근간이 되어 전개되는 이 작품은 AB코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A부분에서는 동기 a가 다양한 음표  $\bullet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가 조합된 긴 호흡의 프레이즈로 이루어진 왼손과 어우러지면서 불규칙한 움직임이 연상된다. 하지만 B부분에서는 동기 b가 동기 a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고 왼손에서  $\downarrow \downarrow$  - 리듬이 일관되게 제시되어 규칙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A부분은 F#4, B부분은 E3를 중심으로 선율이 전개되는데 이렇게 중심음 (tonal center)이 변화됨으로써 새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외 곡 전반에 걸쳐 *pp*와 *mp*의 셈여림만을 제시하고, ‘부드럽게(tenderly)’라는 지시어를 처음에 제시한 것, 그리고 E3에서 G6에 이르는 음역에서 선율이 제시되고, 18마디 중 6마디를 제외하고는 왼손도 높은음자리표에서 표기된 것은 크기가 작은 자주색 참새를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 2. 벌새

《벌새》는 초당 53번 날개 짓을 하는 아주 작고 빠른 새로 알려져 있다([https://www.allaboutbirds.org/guide/Rufous\\_Hummingbird/](https://www.allaboutbirds.org/guide/Rufous_Hummingbird/)). 이러한 새의 빠른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작곡가는 ‘빠르고 희미하게 빛나듯이(fast and shimmering)’라는 묘사적 지시어와  $\downarrow = 100$ 의 메트로놈 표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2/2( $\bullet$ ) 박자를 사용함으로써 박(beat)이 4분음표( $\downarrow$ )가 아닌 2분음표( $\downarrow$ ) 단위로 진행되도록 하여 빠른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악보 2).

<sup>2)</sup> 본 연구에서는 만두카 출판사(Manduca music publications)에서 2007년에 출판된 「Birds: A suite of eight impressionistic studies for piano solo」 악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악보 2-1. 마디 1-2

악보 2-2. 마디 5-6

악보 2. 《별새》에서 나타난 2가지 특징적 동기

곡 전반에 걸쳐 셋잇단음표 리듬패턴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별새의 빠른 날개 짓의 표현에 매우 최적화된 표기로 보인다. 이렇게 3분할 리듬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동기 a는 마디 5에 와서 2분할 리듬패턴으로 바뀌는데, 2분할 리듬패턴에 기초한 동기 b는 별새의 움직임 변화를 암시한다. 특히 마디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기 a는 선율이 전위되어 변형되면서 ‘하행 → 상행’ 혹은 ‘상행 → 하행’하는 날개 짓이 흥미롭게 유추되는데, 마디 5에 와서는 ‘상행 → 하행’의 움직임만이 강조된 선율 진행이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오른손의 바쁜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왼손에서는 매우 느린 움직임의 주제 선율이 2마디 단위의 프레이즈로 나타나고, 그 진행에 따라 별새가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바쁜 움직임이 강조된 동기 a가 나타날 때 제시되는 왼손의 1주제 선율보다 동기 b가 등장할 때 나타나는 왼손의 2주제 선율이 4분음표와 도약 음정의 사용에 의해 더욱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도약 음정의 진행은 마디 12에서 12도 간격의 음정이 발생함으로써 극에 달한다. 그 외 작곡가는 별새의 빠른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높은음자리표만 사용된 악보 표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C4에서 A#7에 이르는 음역에서 선율이 제시된다. 또한 마디 18에서 *mf*가 제시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ppp-mp*의 셈여림을 제시함으로써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는 별새의 움직임을 연주자가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도와준다.

### 3. 딱따구리

이 곡에서는 딱따구리가 날카로운 부리로 나무를 쪼는 모습과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가는 모습이 2개의 특징적인 동기로 제시된다. 16분음표 리듬패턴이 검은건반과 흰건반을 오가는 단 2도 선율로 제시되는 동기 a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한 그 선율이 장 2도의 화성 음정에 기초하고 있어 음향적으로도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면서 나는 소리들을 연상할 수 있게 해 준다(악보 3).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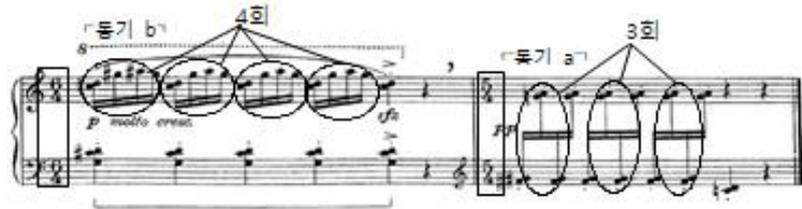
좁은 간격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동기 a와는 대조적으로 동기 b는 상대적으로 넓은 간격을 가진 증 4도 및 증 5도의 음정이 강조되는 선율로 소개되어 딱따구리가 날개 짓 하며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악보 3). 이렇게 딱따구리의 특징적 움직임에 기초한 2개의 동기가 조합된 프레이즈는 3마디+3마디+3마디+2마디의 구조로 곡 전체에서 유기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발전된다.



악보 3. 《딱따구리》 마디 1-2에서 나타난 2가지 특징적 동기

한편, 딱따구리의 움직임은 아티큘레이션의 대조로도 나타나는데, 나무를 쪼는 모습은 스타카토, 날아가는 모습은 레가토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나무를 쪼는 모습은 일관되게 *pp-cresc-mp*의 쉼여림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나무를 쪼면서 증가되는 에너지의 변화가 감지되도록 제시되었다. 반면 동기 b는 *sf*가 제시된 후  $\text{>}$ 가 표시되어 강도 높은 에너지를 품고 힘차게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올라 나무에 가볍게 착지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동일한 쉼여림으로 각각의 동기들이 제시되다가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동기 a와 동기 b의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고 쉼여림과 박자도 <악보 4>와 같이 도입부와는 다르게 전개된다. 동기 a의 경우 16분음표 리듬패턴이 마디 1에서 4회, 마디 11에서 3회 제시된다. 그리고 동기 b의 16분음표 리듬패턴은 마디 2에서 2회, 마디 10에서 4회 제시된다. 이는 모두 박자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데 동기 a는  $6/4 \rightarrow 6/4 \rightarrow 7/4 \rightarrow 5/4$ , 동기 b는  $3/4 \rightarrow 2/4 \rightarrow 3/4 \rightarrow 6/4$ 로 매번 동기가 재현될 때마다 박자가 바뀌어 제시된다. 이러한 박자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딱따구리의 움직임의 간격과 에너지 레벨의 변화를 유도해낸다.



악보 4. 《딱따구리》 마디 10-11에서 나타난 2가지 특징적 동기 변화

## 4. 갈매기

이 곡에서는 갈매기가 날아서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을 묘사하는 2개의 대조적인 동기가 등장한다. 동기 a에서는 검은건반과 흰건반을 양손 교대로 치는 셋잇단음표의 아르페지오 패턴이 제시되어 갈매기가 역동적으로 나는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묘사하였다. 연이어 나오는 동기 b는 ‘주먹(fist)’이라는 지시어를 사용한 클러스터를 장식음으로 사용하여 강렬한 소리를 뿜어 나오게 하는데 이는 갈매기가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과 갈매기의 새소리를 동시에 연상할 수 있게 해 준다(악보 5).



악보 5. 《갈매기》 마디 1-2에서 나타난 2가지 특징적 동기

동기 a와 동기 b는 F#2에서 D#7에 이르는 넓은 음역에서 제시되는데 이는 갈매기가 다양한 높이로 날아올랐다가 수면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동기 a는 〈악보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같은 패턴을 3옥타브에 걸쳐 반복하거나, 하행하는 아르페지오 선율로 전위시켜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날아가는 거리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동기 b는 마디 11마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f*의 셈여림으로 제시되어 먹이를 낚아채는 극적인 장면이 매우 효과적으로 제시된다. 또한 작품에서 ‘공격적으로(violently)’, ‘소란스럽게(turbulently)’라는 지시어를 사용함으로써 갈매기의 거침없는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을 도와준다.



악보 6-1. 마디 3

악보 6-1. 마디 5

악보 6-1. 마디 7

악보 6. 《갈매기》에서 나타난 동기a 변화



또한 도입부에서 제시된 동기는 <악보 8>에서 제시된 것처럼 여러 형태로 변형되는데, a'는 리듬패턴, a''는 리듬패턴과 왼손 반주 형태, a'''는 동형진행을 이용한 선율선의 이동을 통해 동기 a를 변화시켰다. 또한 마디 11에서는 a'와 동일한 동기의 조합을 사용하고 있지만 음역을 변화시켜 다른 움직임을 연상시킨다.



악보 8-1. 마디 3

악보 8-2. 마디 6

악보 8-3. 마디 13

악보 8. 《박새》에서 나타난 동기 a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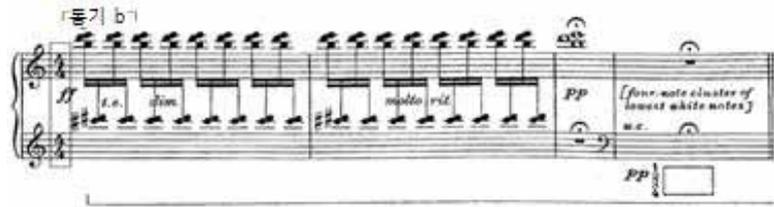
한편, p의 셈여림으로 완전 5도 음정에 기초한 스케일 패시지를 제시한 c와는 달리 c'에서는 f의 셈여림에서 12도 음정에 기초한 글리산도 패시지를 제시하여 선율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그 외 17마디 중 2마디를 제외하고는 왼손도 높은음자리표에서 표기되어 있고, F#3에서 G7에 이르는 높은 음역을 폭넓게 오가며 곡이 전개되는데, 이렇게 셈여림과 음역을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의해 상상되는 움직임의 진폭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 6. 대머리수리

대머리수리는 죽은 동물을 뜯어먹고 사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 2개의 대조적인 동기가 독수리의 습성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동기 a는 ‘빈사상태의(moribund)’라는 지시어와 함께 제시되는데 ‘라-솔#-라-파#-솔-미-파’로 느리게 진행되는 오스티나토 선율은 반죽음 상태의 동물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한편, 동기 b는 ‘빠르고 날카롭게(fast and shrill)’라는 지시어와 함께 복조에서 16분음표의 빠른 패시지로 등장하는데 이는 빈사상태의 동물이 대머리수리의 공격을 받아 사투를 벌이는 것 같은 장면이 연상된다(악보 9).



악보 9-1. 마디 2-6



악보 9-2. 마디 17-20

악보 9. 《대머리수리》에서 나타난 2가지 특징적 동기

상이한 박자의 사용은 2개의 동기를 대조적인 성격으로 구체화시키는데 일조를 한다. 동기 a에서는 불규칙 박(unequal beat)을 가진 7/8박자가 사용되었는데, 비대칭적인 박에 의해 불안한 분위기가 효과적으로 연출된다. 동기 b는 4/4박자의 홑박자가 사용됨으로써 16분음표 리듬패턴의 강력한 움직임を 끌어낸다. 한편, 코다에서는 7/8박자 한마디에서 8분음표로 모두 제시되었던 오스티나토 선율을 점4분음표의 리듬으로 확대시켜 3/8박자의 11마디에 걸쳐 펼쳐 놓음으로써 독수리와 사투를 벌이던 동물이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 것을 상상하게 한다.

작곡가는 이 곡에서 박자 외에도 피아노 건반의 최저음에서 연주해야 하는 클러스터, 왼손과 오른손의 간극을 벌려 이질감이 느껴지게 하는 선율 진행, 텍스처와 아티큘레이션의 변화, 소프트 페달의 사용, pp에서 ff를 오가는 극단의 셈여림 대조를 통해 이곡의 음산한 분위기를 극대화시켰다.

## 7. 펭귄

‘뒤뚱뒤뚱 걷듯(wadding)’이라는 지시어로 시작하는 이 곡은 펭귄의 뒤뚱거리는 움직임이 유머러스하게 표현되어 있다. 마디 1에서 제시된 아치형으로 이루어진 동기 a는 곡 전체에 걸쳐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등장하여 펭귄의 기우뚱 거리는 발걸음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오른손에서 등장하는 동기 b는 당김 음이 사용된 ♯ J ♯ J ♯ J ♯ 리듬패턴이 ‘솔-미-라-레’로 하행하는 선율에 기초해서 동형진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동형진행으로 제시되는 오른손의 선율은 펭귄이 빙판을 불안정한 모습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동기 c에서는 4분음표의 당김음에 기초한 리듬패턴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테누토의 아티큘레이션이 제시되어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조심스럽게 걷는 펭귄의 모습이 상상된다. 그리고 동기 c의 종지 부분에 나타난 ♯ J ♯ J 리듬 패턴과 숨표, 그리고 느닷없는 c#의 출현은 매우 유머러스한 음색이 연출되며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기대하게 하는 전개를 가진다. 특히 동기 c의 마지막 부분은 곡 전체에서 4번 등장

하는데 코다에 가서야 c#이 c로 해결되면서 종지를 맞이하여 펭귄이 긴 여정을 마친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악보 10).



악보 10-1. 마디 2-4



악보 10-2. 마디 7-9

악보 10. 《펭귄》에서 나타난 2가지 특징적 동기

한편 각 동기에서 발견되는 움직임적인 특징은 셈여림에 의해서 통일감을 준다. 주제 선율이 처음 제시되는 부분은 A부분과 A'부분 모두 *mf*로 시작한다. 하지만 프레이즈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dim.*가 적용되어 A부분은 *p*, A'부분은 *pp*로 끝나는데 마치 긴 여정을 뒤뚱거리며 걸어온 펭귄의 지친 모습이 연상된다.

이 곡은 다른 곡에 비해 왼손과 오른손의 음역의 구분이 뚜렷하고 오른손은 선율, 왼손은 반주를 담당하고 진행된다. 하지만 A'부분의 경우 A부분에서 제시된 주제 선율이 한 옥타브 위 음역에서 장식음이 첨가된 변형된 형태로 나와 동일한 선율이지만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

## 8. 독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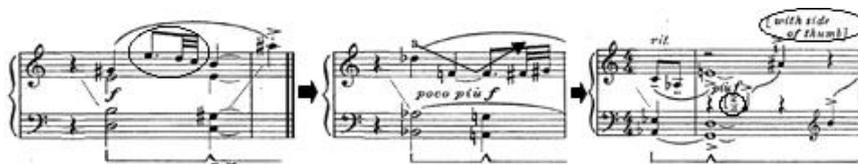
새 중의 왕으로 알려진 독수리는 긴 날개를 펼쳐 활공하는 새이다. 그런데 그 위용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작은 새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s://www.allaboutbirds.org/guide/Bald\\_Eagle/](https://www.allaboutbirds.org/guide/Bald_Eagle/)). 이러한 독수리의 특징을 반영하듯 8번은 독수리의 새소리보다는 움직임적인 특징에 초점이 맞춰 작곡되었고, 곡의 시작 부분에도 '장엄한(Majestically)'라는 지시어가 명시되어 있다. 이 곡은 〈악보 11〉에서 제시된 동기 a와 동기 b를 축으로 구성되는데 두 개의 동기는 매우 대조적인 움직임을 연상하게 한다.



악보 11. 《독수리》에서 나타난 2가지 특징적 동기

f의 셈여림에서 단 6도-완전 4도-장 7도의 도약 음정(솔#-미-시-라#)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동기 a는 두터운 화성 반주와 4분음표의 연속적인 진행에 의해 독수리의 장엄한 기운이 느껴진다. 연이어 제시되는 동기 b는 완전 5도-단 2도-완전 8도(레-라-라#-라#↑)로 진행되면서 동기 a와 유사한 도약 음정에 기초한 선율 진행을 가지고 있으나 온음계에 기초한 장식적 선율이 장식음으로 첨가되면서 새로운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동기 b가 초지일관 온음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하행 선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 비해, 동기 a는 무조에서 E2부터 A#6에 이르는 넓은 음역을 사용하여 움직임의 대조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악보 1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기 a는 리듬, 선율, 텍스처 그리고 주법의 변화를 통해 움직임의 변화를 야기 시킨다.



악보 12-1. 마디 3

악보 12-2. 마디 5

악보 12-3. 마디 11

악보 12. 《독수리》에서 나타난 동기 a 변화

그 예로 마디 3에서 4분음표 대신 첨가된 부점리듬(♩♩♩)은 독수리 날개의 힘찬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마디 5에서는 선율을 반진행으로 제시하여 뉘앙스의 변화를 꾀하였으며, 마디 11에서 제시된 특별한 주법(한음을 두 개의 손가락으로 치는 주법; 엄지손가락의 옆면으로 치는 주법)은 연주자에게 독수리의 근접할 수 없는 위용을 표현하라는 작곡가의 당부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또한 4/4-6/4-3/4-4/4박자로 박자가 변하면서 동일한 선율이 등장할 때도 강박의 위치가 달라져 미묘한 뉘앙스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상이한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 IV 움직임을 활용한 「새들 1권」의 교수방안 모색

Ⅲ장의 악곡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새들」은 모두 새의 특징적인 움직임과 울음소리를 기초로 작곡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새가 실제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모방해보는 것은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에 본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영상 활용을 통한 학습

「새들」에는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야생 조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새의 특징적인 움직임과 울음소리 표현을 위해 한 작품에서 2~3개의 대조의 동기를 사용한 Bernstein, S의 작곡기법을 이해하는데 새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이 과정에서 정지된 새의 모습을 제공하는 사진보다는 새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영상을 보는 것이 새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데 국내 대부분의 조류 관련 학회나 연구소의 사이트에서는 영상보다는 사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Wildscreen Arkive([www.arkive.org](http://www.arkive.org)), The Cornell Lab of Ornithology([www.birds.cornell.edu](http://www.birds.cornell.edu)) 등 해외 조류 관련 사이트에서는 조류의 영상, 사진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매우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어 새의 움직임과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트를 활용해서 영상을 본 후 새의 특징을 발견하고, 그 특징을 묘사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악곡 분석뿐 아니라 표현력 있는 연주를 위해 필수적 과정으로 여겨진다.

### 2. 플라스틱 애니메이션(plastique animée)을 통한 학습

Bernstein, S. 는 그의 저서에서 “나는 Dalcroze, E. J.(1865-1950) 교수법에 대해 읽고 들은 모든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껴서 이 원리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기로 결심했다. [...] Dalcroze, E. J. 교수법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몸의 동작을 억제하고 있는 요소들을 털어버릴 수 있었고, 이 경험이 내 자신과 학생들의 피아노 주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1981:120)라고 밝혔다. 스위스의 음악교육자 Dalcroze, E. J. 의 독창적인 교수법 가운데서도 특히 음악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한 내용을 신

체 움직임으로 구성하여 ‘생명력 있는 몸짓’으로 표현하는 플라스틱 애니메 작업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생성하고 움직임을 근육에 저장하는 효과가 있어 연주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김지혜, 유승지 2017:167).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이루어지는 플라스틱 애니메 작업의 가장 특징 적인 것은 무용가와 음악가의 역할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음악 분석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주체가 다 음악가라는 점이다. 음악가는 플라스틱 애니메 작업을 위해 1) 작곡가가 악보에 표기한 내용을 분석하고, 2) 그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움직임을 구상하여야 하며, 3) 음악의 요소를 움직임으로 표현할 때 시간(time), 공간(space), 에너지energy의 특징을 파악한 후 음악과 움직임이 일치하도록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 3. 움직임과 연주를 결합한 창의적 예술 활동을 통한 학습

‘영상을 활용한 학습’이 영상을 통해 시청각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면 ‘플라스틱 애니메를 활용한 학습’은 악보 분석을 통해 작곡가의 생각을 읽은 후 그것을 창의적인 몸짓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온몸으로 음악을 익히고 음악을 시각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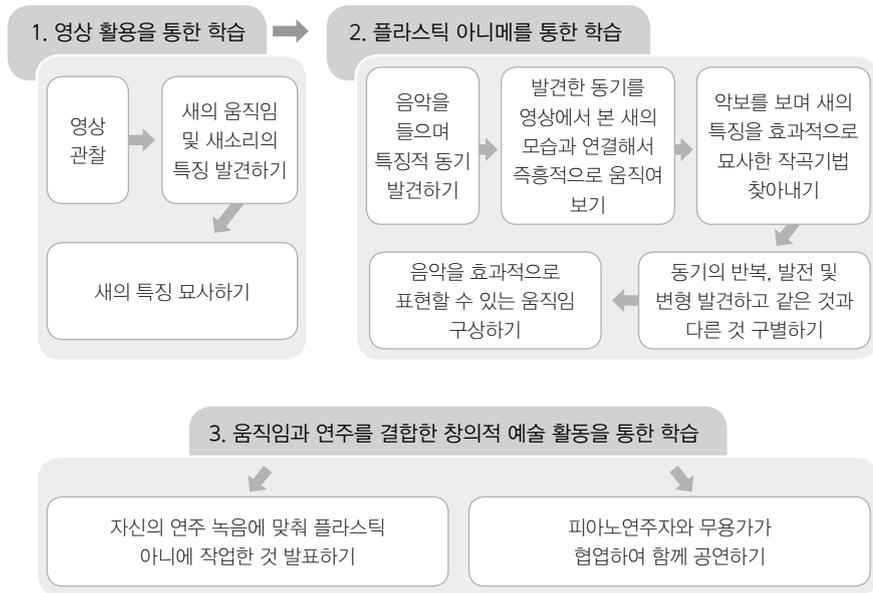
영상 관찰을 통해 새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이해하고 악보를 보게 되면 작곡가가 표기한 음들의 의미가 매우 쉽게 다가온다. 또한 플라스틱 애니메 작업 과정에서 움직임을 통해 음악을 표현하면 특정 동기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과 결부되어 변형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서 제시된 <표 3>은 「새들」 중 《대머리수리》의 영상을 관찰하여 대머리수리의 특징을 파악하고, 작곡가가 이 곡에서 어떤 음악적 요소를 적용하였는지 분석한 후 음악에 적용 가능한 이야기와 움직임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경과구-A'-코다의 구조로 이루어진 《대머리수리》는 <표 3>에서 요약된 음악적 특징 때문에 각 부분에서 작곡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움직임을 구상할 때 음악의 특성에 맞도록 시간, 공간, 에너지의 변화를 적절히 배합하여 움직임을 창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피아노 연주 시 작곡가가 악보에 명시한 사항들을 적절한 타이밍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음악적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된다.

표 3. 《대머리수리》에서 나타난 음악과 움직임의 상관관계

구분	A	경과구	A'	코다
마디	m. 1 - m. 18	m. 20 - m. 24	m. 24 - m. 43	m. 44 - m. 55
템포 지시어	moribund  , slower	fast and shrill	Tempo I	
박자	7/8	4/4	7/8	3/8
리듬	8분음표 오스티나토 제시	16분음표 리듬패턴과 대조적인 온음표 제시	8분음표 오스티나토 제시	점4분음표만 일관되게 제시
셈여림	<i>pp-mp-pp-mp- mp-pp-mp</i>	<i>ff-pp</i>	<i>pp-mp-pp-mp- mp-pp-mp</i>	<i>f</i> 
아티 클레이션	레가토	마르카토	레가토	레가토
프레이즈	2마디+8마디+ 8마디	4마디	3마디+9마디+ 4마디+4마디	11마디
페달	소프트페달과 댐퍼페달의 지속적 사용	소프트페달 없이 댐퍼페달 지속적 사용	소프트페달과 댐퍼페달의 지속적 사용	
음역	E2 - A5	A0 - C 6	A0 - A5	B2 - A5
텍스추어	단 선율, 3도 음정	클러스터	단 선율, 화음, 클러스터	단 선율
상상되는 이야기	빈사상태의 동물이 느린 숨을 쉬며 널브러져 있고 그 주변을 대머리수리가 살피며 움직인다.	빈사상태의 동물이 대머리수리의 공격을 받아 사투를 벌인다.	다시 정적이 흐르며 음산한 분위기가 확대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대머리수리와 사투를 벌리던 동물이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다.
상상되는 움직임	무거운 에너지, 느린 템포, 곡선적인 공간을 사용한 동작으로 움직인다.	무거운 에너지, 빠른 템포, 직선적인 공간을 사용한 동작으로 움직인다.	무거운 에너지, 느린 템포, 곡선적인 공간을 사용한 동작으로 움직인다.	거의 정지할 것 같은 동작으로 무거운 에너지, 느린 템포, 곡선적인 공간을 극대화시킨 동작으로 움직인다.

〈표 3〉에서 제시된 이야기와 움직임은 작품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하지만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악곡 분석, 영상, 플라스틱 애니메 등 피아노 연주 외의 다양한 교수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하나의 작품을 여러 경험을 통해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표 4. 영상 활용, 플라스틱 애니메, 창의적 예술 활동을 통한 학습과정



## V 결론

김은수는 “음악은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창작되는 것이다”(2016:136)라고 하였는데, Berntein, S.는 아주 작은 별새부터 다른 새들을 크기에서 압도하는 독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새들에게서 받은 인상을 기초로 모든 음악적 요소들을 조합하여 「새들 1권」을 작곡하였다. 「새들 1권」의 악곡분석을 통해 움직임과 음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Berntein, S.는 각 새의 특징적인 움직임과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2~3개의 동기를 제시하였고, 이 동기들을 기초로 발전, 변형시키는 기법을 사용했다. 박의 단위, 박자의 변화에 따라 리듬패턴이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움직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끌어내었다. 동기의 발전 양상에 따라 프레이즈와 형식이 구분되었고, 이에 따라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새소리와 움직임을 반영한 음역, 음정, 화성에 따라 새의 크기, 소리를 효과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고,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서 불

협화 음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무조, 복조의 사용이 두드러져 현대적 음향을 자아내었다. 일반적인 템포 관련 지시어 대신 새의 특징이나 분위기를 적절하게 드러내는 묘사적 지시어를 사용하여 곡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암시하였다. 그 외 썸머림, 아티클레이션, 특이한 주법을 제시함으로써 음악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뉘앙스의 변화를 섬세하게 지시하였다.

이렇게 움직이는 새의 특징을 다양한 음악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매우 사실적인 음악으로 구현해낸 Bernstein, S.의 「새들」의 효과적인 연주를 위해서는 연주자가 음악을 움직임으로 경험해 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움직임을 통해 음악을 시각화하는 작업: 1) 영상을 활용한 학습, 2) 플라스틱 아니메를 활용한 학습, 3) 움직임과 연주를 결합한 창의적 예술 활동을 시도할 것을 교수 방안으로 제안했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피아노 교육가들과 무용 교육가들의 협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두 장르가 융합된 새로운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은수(2016), “효율적인 현대무용수업을 위한 피아노 즉흥반주법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4)**, 119-137.
- 김지혜, 유승지 (2017), “마르탱 8 Preludes pour le Piano 박과 리듬 분석에 기초한 플라스틱 아니메의 적용”, 세계음악학회, **음악과 문화 37**, 165-208.
- 유승지(2014), “동물관련 표제음악을 활용한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 지도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음악논집 18(2)**, 35-64.
- Bernstein, S. (1973), *Birds 2: A second suite of nine impressionistic studies for piano solo*, New York, NY:Schroeder & Gunther, Inc.
- \_\_\_\_\_ (1981), 백낙정(역, 1993), **자기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 서울:음악춘추사.
- \_\_\_\_\_ (1986), *Belinda the Chipmunk for solo piano*, NY:G. Schirmer, Inc
- \_\_\_\_\_ (1987a), *Raccoons Book 1: A musical adventure for solo piano*, NY:Tetra Music Corporation.
- \_\_\_\_\_ (1987b), *Raccoons Book 2: A musical adventure for solo piano*, NY:Tetra Music Corporation.
- \_\_\_\_\_ (1988), *Kochel and Sheila: A musical adventure about two siamese cats*, NY:G. Schirmer, Inc
- \_\_\_\_\_ (1991), *20 Lessons in keyboard choreography*, WI:Hal Leonard Publishing Corporation.

- \_\_\_\_\_ (2007a), *Insects Book I for solo piano*, NY: Manduca Music Publications.
- \_\_\_\_\_ (2007b), *Insects Book II for solo piano*, NY: Manduca Music Publications.
- \_\_\_\_\_ (2007c), *Birds: A suite of eight impressionistic studies for piano solo*, NY: Manduca Music Publications.
- \_\_\_\_\_ (2016), *Play life more beautifully*, Carlsbad, CA: Hay House, Inc.
- Magrath, J. (1995), *Guide to standard teaching performance literature*,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Inc.

wikipedia. Scientific pitch notation. 2018. 11. 25 검색.  
[https://en.wikipedia.org/wiki/Scientific\\_pitch\\_notation](https://en.wikipedia.org/wiki/Scientific_pitch_notation)

Piano Education Page. Artist/Educator Archive Interview – Seymour Bernstein. 2018. 7. 11 검색.  
<http://pianoeducation.org/pnosbern.html>

The Cornell of Ornithology all about Birds. Bald Eagle. 2018. 10. 29 검색.  
[https://www.allaboutbirds.org/guide/Bald\\_Eagle/](https://www.allaboutbirds.org/guide/Bald_Eagle/).

The Cornell of Ornithology all about Birds. Carolina Chickadee. 2018. 7. 05 검색.  
[https://www.allaboutbirds.org/guide/Carolina\\_Chickadee/](https://www.allaboutbirds.org/guide/Carolina_Chickadee/).

The Cornell of Ornithology all about Birds. Rufous\_Hummingbird. 2018. 10. 27 검색.  
[https://www.allaboutbirds.org/guide/Rufous\\_Hummingbird/](https://www.allaboutbirds.org/guide/Rufous_Hummingbird/).

Wildscreen Arkive. 2018. 5. 22 검색, <https://www.arkive.org/>